

## 미국 양축업자, 소·돼지에 항생물질 남용

미국의 소·돼지 양축업자들이 인체에 해로운 항생제를 무절제하게 먹여온 사실이 밝혀져, 쇠고기 수입개방과 함께 큰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 양축업자들이 가축에 사용하는 약품은 주로 항생제로 매일 사료에 조금씩 섞여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에서는 가축에 사용이 허가된 7백종의 약품중 93%가 수의사의 처방이나 의학적인 통제없이 양축업자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년 약 2천7백만톤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은 소비자들에게 약물에 오염된 육류 제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미국 국내는 물론, 국제시장에 수출되는 미국의 육류제품이 불신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축을 도살하기 직전에 항생제나 설파제 등을 급여하거나, 평소 정량 이상의 항생제 등을 급여하면 도체에 항생제 등이 잔류함으로써 이를 섭취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축에게 항생제 등을 급여하고 있는 양축업자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가축에 대한 약품남용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육류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금년초에 수입한 돈육에서 기준치(0.05ppm)를 훨씬 초과한 0.4ppm의 설파메타진이 검출되어 일부 제품을 반

송조치한 바도 있다.

이처럼 관례화 되다시피 한 가축에 대한 약품사용이 최근 새삼스럽게 문제가 된 것은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감독관인 「프랭크 영」씨가 공청회를 통해 미국의 주요도시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와 우유에서 설파메타진의 잔류가 확인되었다고 증언하면서 부터였다.

또한 미국 수의학협회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아놀드 헨츨」박사는 「설파메타진 문제는 미국 축산업계의 심각한 문제점 가운데 한가지 예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가축에 사용되는 약품의 허가·배포·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자 협회인 NPPC(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에서는 시장 출하전 60일간 설파메타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지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의 양축업자들이 계속 항생물질을 남용한다면, 미국 국내서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육류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 소비증대에 큰 위협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도 이와같은 미국의 예를 보아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항생물질과 설파제 등의 잔류문제가 거론되기 전에, 생산자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여 사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취재 : 김동성)